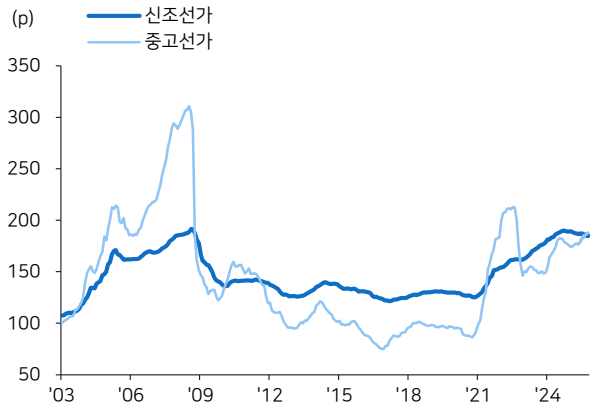
2025. 11. 3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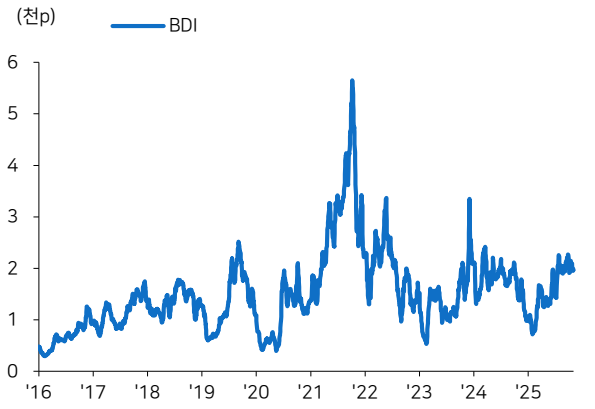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9p (-0.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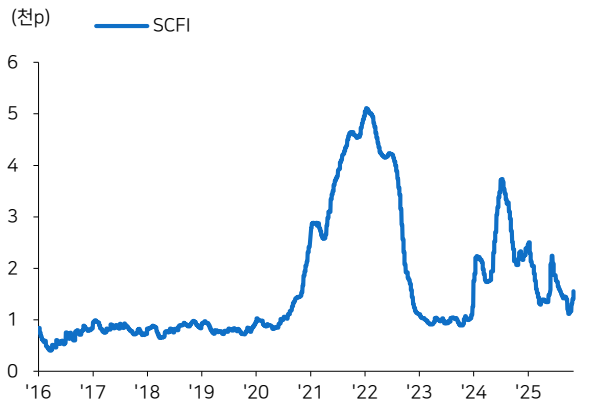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5.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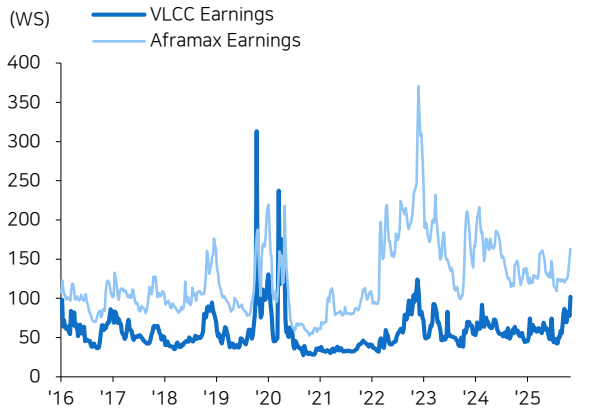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66.0p (-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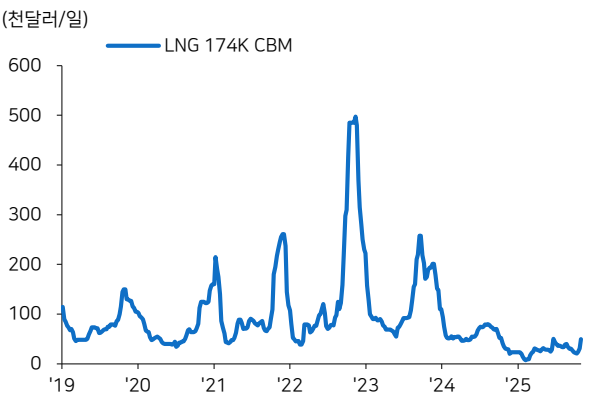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550.7p (+147.2p WoW)



VLCC Spot Rate 101.9WS (+24.5p WoW)



LNG Spot 운임 49.8천달러 (+19.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美 "中,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키로"...한화오션 제재 풀리나 —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미중 무역 협정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보도됨.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했던 해운 · 조선 기업 제재를 철회한다고 전해지며, 앞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거래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음. 이번 합의로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한 중국의 해상 · 물류·조선 관련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알려짐. (https://buly.kr/8lwrmOq)

HD 현대-지멘스, 스마트 기술로 美 조선업 재건 가속 — **아시아경제**

HD현대가 독일 Siemens와 미국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현대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양사는 선박 설계 디지털화, 공정 자동화, 생산 · 품질 · 공정관리의 데이터 기반 최적화 등 단계별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고 전해짐. 두 회사는 기술 협력에 더해 조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며, HD현대는 Siemens가 미국 전역에 보유한 30여개 교육시설을 활용해 교육 인력을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짐. HD현대는 헌팅턴 잉걸스,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 등과도 협력망을 확대 중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8Trcllp)

삼성중공업, '친환경 수리' 사업 뛰어든다 — **시사저널 e**

삼성중공업이 'GREEN WAVE SOLUTION' 상표를 출원하며 친환경 선박 개조 · 정비 시장 진입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월에도 'SHI PREMIUM SHIP care+' 상표를 출원해 애프터마켓(AM)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상표 출원은 기존에 해오던 기자재 정비를 넘어 친환경 선박 수리 시장까지 겨냥한다고 알려짐. IMO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의 친환경 개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HD현대와 한화오션도 이미 친환경 개조 사업을 새 먹거리로 키우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9XMA1o4)

US senator trying to speed up LNG exports again through legislation — **Upstream**

미국 상원의원 Ted Cruz가 LNG 수출에 대한 연방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고 보도됨. 이는 미국 에너지부의 비FTA국 LNG 수출 허가 절차를 단축해 미국 동맹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내용으로 알려짐. 비FTA 라이선스 검토는 일반적으로 FTA 라이선스보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시간이 더 소요되나, 법안은 제재 대상국 외에는 단축 심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이나 의회가 특정 국가의 예외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전해짐. (https://buly.kr/3NJdz4q)

ExxonMobil eyes Mozambique progress after TotalEnergies lifts force majeure — **Upstream**

TotalEnergies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의 불가항력을 해제한 직후 ExxonMobil이 모잠비크에서 Rovuma LNG 프로젝트 추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됨. Rovuma LNG 프로젝트는 TotalEnergies가 2021년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Afungi 건설 부지 일대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이후 FID에 이르지 못했으나, Darren Woods CEO에 따르면 현지 치안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해짐. 최근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회담을 진행했으며, 2026년 1분기 FID를 목표로 전면설계를 마무리 중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6tcnhvK)

TotalEnergies CEO stresses Mozambique LNG can be delivered in four years — **Upstream**

TotalEnergies의 최고경영자 Patrick Pouyanne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현지 정부 승인 후 2029년 완공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4년간의 불가항력 해제 후 계약업체들이 재가동 중이라고 전해짐. 프로젝트는 약 40% 진행, 설계 90% 완료됐으며, 설계 및 조달 수정이 반영된 최신 총비용 추정치는 200억~205억 달러로 보도됨. TotalEnergies는 연간 1,300만 톤 생산량의 약 90%를 장기 판매계약으로 확보했으며, 주요 구매자는 CNOOC, EDF, Shell, 모잠비크 국영 에너지사 ENH 등으로 알려짐. (https://buly.kr/DaPbCeZ)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